



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
(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야행적 수작후인정)

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,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.
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...
- 大韓民國 30年(1948年) 10月 26日 -

이 휘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투하신 백범 선생님께서 즐겨 쓰시던 것이다.
백범 선생은 이 글을 통해 현실의 정치보다는 역사의 심판을,
눈보라치는 조국의 위기를 당하여 일신의 안위보다는
후손들에게 모범이 될 자취를 강조하였다.



〈백범일지〉 교육안 공모대회 수상작품집(제1·2회)